

제주 해양관광의 지출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강석규**

- I. 서론
- II. 연구모형과 선행연구
- III. 자료 및 모형추정
- IV. 요약 및 결론

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Tobit모형을 이용하여 제주 해양관광객의 지출함수 분석을 통해 제주 해양관광의 지출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제주 해양관광객의 지출요인을 분석한 결과, 월 300만원이상 소득, 수도권 거주지 등 사회경제적 특성 요인이 총지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해양관광 행태적 특성 중에는 해양관광 스포츠형그룹(요트, 수상스키, 윈드서핑, 스쿠버다이빙 등을 포함하는 활동 그룹)이 총지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반면 해양관광 휴양형그룹(해수욕, 해변캠프, 갯벌 생태관광, 조개잡이, 바다낚시, 해양 박물관 관람, 해변걷기, 경관 감상, 해양축제 참가 등을 포함하는 활동 그룹)은 총지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한 정보 발굴 등이 총지출에 대해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양레저활동요인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교통비 지출에 긍정적이며, 해양체험활동요

* 이 논문은 2013년 해양수산부 재원으로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관광객 증가에 따른 제주 해양관광산업의 경제적 효과)로서 연구보고서의 일부를 발췌·수정한 논문이다.

** 제주대학교 경상대학 경영학과 부교수

인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숙박비 지출에 긍정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해양레저활동, 교통편리성, 다양한 숙박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오락비 지출에 긍정적인 것으로 관찰되었다.

주제어: 제주, 해양관광, 지출결정요인, 토빗모형

I. 서론

본 연구는 제주 해양관광객의 지출함수를 통해 제주 해양관광의 지출요인을 분석하는데 있다.

해양관광이란 국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해양과 연안에서 이루어지는 관광활동 및 레저·스포츠 활동이라 할 수 있으며(해양수산부, 2001), 또한 해양에 전적으로 의존하거나 해양에서만 할 수 있는 특별한 관광활동으로서 해양을 경관자원으로 활용하는 소극적 의미에서부터 해양스포츠와 같은 적극적 의미까지 포괄한다고 정의할 수 있다(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1).

해양관광은 주 5일근무제, 교통여건의 개선, 여가문화 확산 등으로 2010년 일반관광의 국민 국내여행이동총량 3.4억일의 50%인 1.7억일에 머물던 것이 2023년에는 요트·보트 등 수상레저, 스킨스쿠버 등 해중레저 및 크루즈관광 분야가 큰 폭으로 증가하여 국민 국내여행이동총량 대비 65%인 약 5억일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해양수산개발원, 2013).

이러한 해양관광수요에 부응하여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해양관광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제주도는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 10개년(2012년~2021년) 계획과 제주해양관광 특성화 5개년 계획(2010년~2014) 등에 기초하여 해수욕, 해변경관 감상, 청정수산물 구매·시식 등 단순한 해양관광활동에서 벗어나 낚시, 요트, 모터보트, 잠수함관광 등 해양레저활동을 즐기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지금까지 소비자의 지출요인에 관한 국내연구는 축제(이희찬, 2002),

골프(이범재·정경일, 2008), 전시회(소국섭·유창근, 2007), 농촌관광(이희찬, 2007), 무선인터넷(구세주·유승훈·곽승준, 2008), 온천(한은진·박정열·백운일, 2009), 김(이민규·박은영, 2009),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이승길, 2010), 맥주 전문바(김연선·소국섭, 2008)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되어 왔는데, 일부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을 대상으로 해양관광 지출요인을 분석한 연구가 일부 있으나 현재 제주 해양관광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는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처음으로 제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밑거름이 되는 제주 해양관광객의 지출요인을 규명함으로써 제주 해양관광 소비자의 기초적인 자료로서 활용하고 해양관광개발 정책의 방향과 관광마케팅 전략에 유용한 정보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II. 연구모형과 선행연구

제주 해양관광객의 지출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Tobin(1958)이 경제학에서 처음으로 적용한 Tobit(Tobin's probit)모형을 이용한다.

Tobit모형은 종속변수가 취하는 값의 범위가 부분적으로 삭제 또는 절단되어 어떤 특정한 값 이상이나 이하에서 관찰되지 않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절단회귀모형으로 종속변수가 일정한 범위의 값, "0"이상의 비음수를 가진 종속변수에 대한 설명변수의 영향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모형이라 할 수 있다.[Maddala(1992), Greene(2003), 이승길(2010) 등].

일반적으로 제주 해양관광객의 지출액에 관한 설문조사시 해양관광객이 관광시장에서 예상되는 모든 지출항목에 대해 지출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며 또는 응답자의 실수나, 잘못된 비용항목 분류 등으로 지출 항목에 대해 "0"의 지출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때 최소자승법에 의한 회귀모형(OLS)으로 분석할 경우 편의 및 불일치된 추정치를 초래하며, 또한 양의 지출만을 고려하여 OLS로 분석할 경우 불일치된 추정뿐만 아니라 종속변수에 대한 설명변수 영향력의 과소평가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모형이 Tobit 모형이라 할 수 있다[이승길(2010) 등].

Tobit모형은 식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begin{aligned} y_i^* &= x_i' \beta + \sigma \epsilon_i \\ y_i &= 0, \quad \text{if } y_i^* \leq 0, \\ y_i &= y_i^*, \quad \text{if } y_i^* > 0 \end{aligned}$$

식 (1)

여기서 y_i^* 는 잠재변수로서 “0”을 포함한 해양관광객의 지출액, x_i' 는 독립변수의 벡터, β 는 추정모수의 벡터, y_i 는 응답된 지출액, ϵ_i 는 오차항을 의미하며, σ 는 규모 모수(scale parameter)로서 삭제 및 절단된 회귀모형에서 확인되며, β 와 함께 추정된다.

모수 β 와 σ 는 다음과 같은 식 (2)의 로그우도함수를 최대화함으로써 추정된다.

$$\begin{aligned} l(\beta, \sigma) &= \sum_{i=1}^N \log f((y_i - x_i' \beta) / \sigma) \cdot 1(0 < y_i < \infty) \\ &+ \sum_{i=1}^N \log F((y_i - x_i' \beta) / \sigma) \cdot 1(y_i = 0) \end{aligned}$$

식 (2)

여기서 f , F 는 각각 오차항(ϵ)의 밀도와 누적분포함수를 나타낸다. Tobit 모형은 관광분야를 포함한 환경이나 자원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되었다. 주로 관광분야에서는 주로 관광지역이나 축제 방문 관광객의 소비지출 결정요인을 분석한 연구인데, 이희찬(2002), 김선하·이희승·현미선(2005), 한은진·박정열·백운일(2009), 이승길(2010), 김민수·전진호(2013) 등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들 연구에서 이용하고 있는 지출의 결정요인 변수와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이희찬(2002)은 함평나비축제 관광객의 지출을 설명하는 변수로 방문자의 소득수준, 방문그룹 인원수, 거주 지역, 교통수단, 축제 만족도, 반목 방문, 방문 목적, 인적 구성, 나

이, 직업 등의 변수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중 방문자의 소득수준, 방문그룹 인원수, 거주 지역, 축제 만족도, 방문 목적 등이 방문자의 소비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임을 제시하고 있다. 김선하·이희승·현미선(2005)은 경주 한국의 술과 떡 잔치 방문관광객의 지출을 설명하는 변수로 직업, 교육, 방문목적, 거주 지역, 숙박여부, 성별, 결혼유무, 소득, 행사내용 및 구성, 음식 등의 변수를 이용하고 있으며, 거주 지역, 성별, 결혼 여부, 방문목적 등이 소비지출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은진·박정열·백운일(2009)은 동래온천 관광객의 지출을 설명하는 변수로서 방문행동(가족동반, 숙박일수, 온천방문그룹당 참여인원), 인구통계(성별, 학력수준, 소득, 연령, 직업, 거주지), 온천선택속성(부대시설, 숙박시설, 주변관광지, 타의적 방문, 온천수의 질, 대중온천탕, 접근성) 등의 변수를 이용하고 있으며, 체제일 수, 구성원의 수, 소득수준 등과 부대시설, 온천수의 질, 대중온천탕, 접근성 요인 등이 지출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승길(2010)은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해양관광객의 지출을 설명하는 변수로 사회경제적 특성(기혼여부, 성별, 학력수준, 소득수준, 연령, 직업), 근무형태, 관광성향, 숙박형태, 거주지, 동반형태, 정보원천, 방문동기(호기심, 휴식, 해양관광활동, 구매 및 체험, 지인과의 시간, 가족과의 시간) 등의 설명변수를 이용하고 있으며, 대졸이상의 학력, 3~40대 연령층, 콘도나 펜션 숙박형태, 서울·경기권 거주자, 가족동반, 자연산해산물의 시식이나 구매, 해수찜질과 같은 건강체험요인, 친구나 동료와 함께 방문한 그룹 등의 요인이 총지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김민수·전진호(2013)는 강릉커피축제 방문관광객의 지출을 설명하는 변수로 축제만족성(축제컨텐츠, 행사안내의 충실성, 커피관련정보), 축제방문특성(축제경험, 방문인원, 소요시간, 체류시간), 인구통계학적 특성(거주지, 성별, 연령, 교육수준, 결혼유무, 직업, 수입) 등의 요인을 고려하고 있으며, 축제의 컨텐츠, 행사안내의 충실성, 첫방문객, 고학력자, 소요시간 등의 요인이 소비지출에 긍정적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선행연구의 잠재 지출요인을 고려하여 제주 해양관광의 지출결정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지출모형을 위해 투입되는 변수의 정의는 <표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먼저 종속변

수는 총지출비용이며, 총지출비용은 408.95천원으로 제주해양관광에 따른 기회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1인당 평균총지출비용을 말한다. 설명변수는 7개의 사회경제적 특성(결혼여부, 성별, 연령, 직업, 학력, 소득, 거주지 등), 4개의 해양관광행태 특성[해양관광유형(스포츠형, 휴양형, 유람형)¹⁾, 동반형태(가족), 숙박형태(모텔/호텔), 정보원천(인터넷) 등], 15개의 해양관광만족요인(여행정보, 해산물먹거리, 자연경관, 주변관광상품의 연계성, 해양레저활동, 해양체험활동, 교통비, 교통편리성, 숙박비용, 다양한 숙박시설, 숙박시설의 예약성, 흥미로운 관광시설, 지역특유동식물, 특산품, 지역주민친절 등)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스포츠형은 해상공간에서 바람, 파도, 해류 등 자연조건을 활용하는 수면·수중 공간의 스포츠 형태로서, 요트, 수상스키, 윈드서핑, 스쿠버다이빙 등의 활동을 포함한다. 휴양형은 해안을 배경으로 해변 경관감상, 휴양 및 휴식을 목적으로 하는 형태로서, 해수욕, 해변캠프, 갯벌 생태관광, 조간대 수렵(조개잡이 등), 바다낚시, 해양 박물관 관람, 해변걷기, 해변에서 수산물 시식/쇼핑, 일출·일몰 등 경관감상, 해양축제 참가 등의 활동을 포함한다. 그리고 유람형은 해상 및 해저에서 선박 등을 활용하여 관광지를 기항·운항하는 형태로서, 관광유람선, 관광잠수정, 크루즈선, 해중전망대 등을 이용한 해상유람과 해중경관관람 등을 포함하는 활동을 일컫는다.

<표 1> 변수의 설명

변수명		정의	평균값	표준편차
종속 변수	총지출비용	총지출비용 (천원)	408.948	202.323
독립 변수	사회 경제 적특 성 결혼여부	결혼여부 (기혼=1, 미혼=0)	0.586	0.493

- 1) 김영준(2007)의 연구에 따르면, 해양관광유형은 해양관광의 시장별 유형으로 해양 의존형(스포츠형, 휴양형, 유람형)과 해양연관형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해양의존형 휴양형과 해양연관형을 뚜렷하게 구분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어 휴양형으로 통합하여 해양관광유형을 스포츠형, 휴양형, 유람형으로 구분하였다.

	성별	성별 (남자=1, 여자=0)	0.574	0.495
	연령	연령(세)	33.759	12.977
	직업	직업 (전문직/사무직/공무원·교직원=1, 기타=0)	0.399	0.490
	학력	학력 (대졸이상=1, 기타=0)	0.853	0.354
	소득	소득 (300만원이상=1, 기타=0)	0.784	0.412
	거주지	거주지 (수도권=1, 기타=0)	0.570	0.495
해양 관광 행태	해양관광유형	해양관광유형 1 (스포츠형=1, 기타=0)	0.340	0.474
		해양관광유형 2 (유람형=1, 기타=0)	0.294	0.456
		해양관광유형 3 (휴양형=1, 기타=0)	0.366	0.482
	동반형태	동반형태 (가족=1, 기타=0)	0.465	0.499
	숙박형태	숙박형태 (모텔/호텔=1, 기타=0)	0.746	0.435
	정보원천	정보원천 (인터넷=1, 기타=0)	0.631	0.483
해양 관광 만족 도 요인	여행정보	1. 여행정보 (만족함이상=1, 기타=0)	0.574	0.495
	해산물 먹거리	2. 해산물 먹거리 (만족함이상=1, 기타=0)	0.555	0.497
	자연경관	3. 자연경관 (만족함이상=1, 기타=0)	0.846	0.361
	주변관광상품의 연계성	4. 주변관광상품의 연계성 (만족함이상=1, 기타=0)	0.510	0.500
	해양레저활동	5. 해양레저활동(스쿠버, 윈드서핑, 바다낚시 등 해양스포츠) (만족함이상=1, 기타=0)	0.429	0.495
	해양체험활동	6. 해양체험활동(조개잡이, 해수욕, 맨발로 해안걷기 등) (만족함이상=1, 기타=0)	0.356	0.479
	교통비	7. 교통비 (만족함이상=1, 기타=0)	0.443	0.497
	교통편리성	8. 교통편리성 (만족함이상=1, 기타=0)	0.511	0.500
	숙박비용	9. 숙박비용 (만족함이상=1, 기타=0)	0.478	0.500

	다양한 숙박시설	10. 다양한 숙박시설 (만족함이상=1, 기타=0)	0.515	0.500
	숙박시설의 예약성	11. 숙박시설의 예약성 (만족함이상=1, 기타=0)	0.567	0.496
	흥미로운 관광시설	12. 흥미로운 관광시설 (만족함이상=1, 기타=0)	0.561	0.497
	지역특유 동식물	13. 지역특유 동식물 (만족함이상=1, 기타=0)	0.482	0.500
	특산품	14. 특산품 (만족함이상=1, 기타=0)	0.467	0.499
	지역주민의 친절	15. 지역주민의 친절 (만족함이상=1, 기타=0)	0.559	0.497

Ⅲ. 자료 및 모형추정

1. 분석자료

분석자료는 계절적 편차를 줄이기 위하여 봄(2013년 5월 25일~6월 1일), 여름(2013년 7월 20일~7월 28일), 가을(2013년 10월 29일~11월 6일), 겨울(2013년 12월 11일~12월 18일) 사계절에 걸쳐 각 계절별로 250명씩 총 1,000명의 제주 관광객 조사로부터 수집되었다. 설문대상지는 공항, 여객선부두, 주요 해양관광지 등이며, 공항이나 여객선 부두에서는 방문객의 관광활동이 시작되거나 끝난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주요 해양관광지에서는 해양관광활동 중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자 편의(bias)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전교육을 통해 설문지에 대한 각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숙지한 전문조사요원을 투입시켜 개별 면담조사법으로 설문조사가 진행되었다. 표본 1,000개중 해양관광활동을 경험한 841개의 유효표본(공항·여객선 부두 440개, 주요 해양관광지 401개)에서 모든 지출액에 있어 결측치가 있는 2개의 표본을 제외한 839개의 설문지 표본을 분석에 이용하였다.

<표 2> 제주 해양관광객의 1인당 항목별 지출 비용

구분	지출빈도(%)	평균지출(천원)	표준편차(천원)
교통비	99.9	176.49	76.04

숙박비	92.6	46.45	49.59
음·식료비	98.3	59.33	41.25
쇼핑비	65.4	82.02	72.17
오락비	79.9	64.39	47.58
기타	35.2	74.24	74.34
계*		408.95	202.32

주: *는 전체표본(839명)의 평균지출과 표준편차를 의미함.

제주 해양관광객 839명(결측치 2명 제외)을 대상으로 숙박비, 식음료비, 교통비, 쇼핑비, 오락비, 기타 지출 비용 등 총 6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항목별 지출 비용에 대해 설문한 결과, 1인당 평균지출비용은 408.95천 원 정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체적으로 항목별 비용을 살펴보면, 교통비가 평균 176.49천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쇼핑비 82.02천원, 기타비용 74.24천원, 오락비 64.39천원, 음·식료비 59.33천원, 숙박비 46.45천원 등 순으로 지출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 지출모형의 추정결과

Tobit모형을 이용한 총지출비용, 교통비, 숙박비, 음·식료비, 쇼핑비, 오락비, 기타비용 등에 대한 지출모형의 추정결과는 <표 3>~<표 6>에 제시하였다. 지출모형의 추정결과, 규모모수(SCALE)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지니고 있고, 로그우도(log likelihood)와 평균로그우도(Avg log likelihood)의 값을 볼 때 추정모형의 통계적 적합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총지출비용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총지출비용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사회경제적 특성 중 월 300만원이상의 소득그룹(1%이하 유의수준)과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거주지 그룹(5%이하 유의수준)이 총지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기혼그룹, 남자그룹, 연령, 전문직/사무직/공무원·교직원 직업그룹, 대졸이상 학력그룹 등은 총지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해양관광 행태적 특성 중에는 해양관광 스포츠형그룹(요트, 수상스키, 윈드서핑, 스쿠버다이빙 등을 포함하는 활동 그룹, 1%이하 유의수준)이 총지출에 양(+)의 영향을 준 반면 해양관광 휴양형그룹(해수욕, 해변캠프, 갯벌 생태관광, 조간대 수렵(조개잡이 등), 바다낚시,

해양 박물관 관람, 해변건기, 해변에서 수산물 시식/쇼핑, 일출·일몰 등 경관감상, 해양축제 참가 등을 포함하는 활동 그룹, 1%이하 유의수준)은 총지출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모텔/호텔 숙박그룹(1%이하 유의수준)과 인터넷을 통한 정보 발굴(10%이하 유의수준)이 총지출에 대해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관광유람형, 가족동반형태 등의 해양관광 행태적 특성요인은 총지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해양관광만족요인 중 자연경관 만족요인(5%이하 유의수준)과 숙박시설의 예약성 만족요인(10%이하 유의수준)은 총지출에 음(-)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어 자연경관과 숙박시설의 예약성에 대한 만족도 높으면 해양관광의 총지출에 부정적인 것으로 해석된다. 다시 말하자면, 자연경관이나 숙박시설 예약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고 해서 해양관광객의 총지출액이 증가하는 것은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그 이외의 여행정보, 해산물 먹거리, 주변관광상품의 연계성, 해양레저활동, 해양체험활동, 교통비, 교통편리성, 숙박비용, 다양한 숙박시설, 흥미로운 관광시설, 지역 특유 동식물, 특산품, 지역주민의 친절 등 해양관광만족요인은 총지출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3> 총지출 모형의 추정결과

변수명		총지출		
		계수	(Z-통계량)	
상수항		242.60***	(6.51)	
사회경제적특성	결혼여부	24.36	(1.17)	
	성별	-14.59	(-1.05)	
	연령	-0.08	(-0.12)	
	직업	22.29	(1.58)	
	학력	31.94	(1.59)	
	소득	36.23***	(2.59)	
	거주지	34.12***	(2.60)	
해양관광행태	해양관광유형	스포츠형	74.78***	(4.31)
		유람형	-16.02	(-1.01)
		휴양형	-50.12***	(-3.59)

	동반형태	14.29	(0.86)
	숙박형태	63.34***	(4.38)
	정보원천	28.75*	(1.95)
해양관광 만족요인	여행정보	9.72	(0.69)
	해산물 먹거리	-2.38	(-0.15)
	자연경관	-46.00**	(-2.12)
	주변관광상품의 연계성	2.50	(0.15)
	해양레저활동	8.83	(0.54)
	해양체험활동	22.51	(1.49)
	교통비	-8.91	(-0.55)
	교통편리성	20.52	(1.30)
	숙박비용	1.89	(0.12)
	다양한 숙박시설	-13.84	(-0.81)
	숙박시설의 예약성	-35.52*	(-1.80)
	흥미로운 관광시설	26.19	(1.39)
	지역특유 동식물	8.76	(0.47)
	특산품	-14.89	(-0.69)
	지역주민의 친절	20.23	(1.32)
SCALE		191.251(0.000)	
Log likelihood		-5598.245	
Avg. log likelihood		-6.673	

주: ***, **, *는 각각 1%, 5%, 10% 이하의 통계적 유의수준을 의미

<표 4>는 교통비와 숙박비 지출모형에 대한 분석결과를 나타낸다. 우선 교통비 지출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면, 사회경제적 특성 중 대졸이상 학력그룹(1%이하 유의수준), 월 300만원이상의 소득그룹(1%이하 유의수준),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거주지 그룹(1%이하 유의수준)이 교통비 지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기혼그룹, 남자그룹, 연령, 전문직/사무직/공무원·교직원 직업그룹 등은 교통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해양관광 행태적 특성 중에는 해양관광 스포츠형그룹(1%이하 유의수준), 가족동반형태(1%이하 유의수준), 모텔/호텔 숙박그룹(1%이하 유의수준)이 교통비 지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 반면, 해양관광 휴양형(10%이하 유의수준)은 교통비 지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해양관광 유람형, 인터넷을 통한 정보발굴 등의 해양관광행태 특성요인은 교통비 항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해양관광만족요인 중 해양레저활동 만족요인(10%이하 유의수준)이 교통비 지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으나, 이외의 여행정보, 해산물 먹거리, 자연경관, 주변관광상품의 연계성, 해양레저활동, 교통비, 교통편리성, 숙박비용, 다양한 숙박시설, 숙박시설의 예약성, 흥미로운 관광시설, 지역특유 동식물, 특산품, 지역주민의 친절 등 14개 해양관광만족요인은 교통비 지출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 교통비와 숙박비 지출 모형의 추정결과

변수명		교통비		숙박비		
		계수	(Z-통계량)	계수	(Z-통계량)	
사회 경제 적특 성	상수항	99.93***	(7.16)	19.02**	(2.05)	
	결혼여부	-9.39	(-1.19)	1.31	(0.23)	
	성별	2.06	(0.40)	-8.99**	(-2.39)	
	연령	0.12	(0.41)	-0.07	(-0.34)	
	직업	8.67	(1.61)	9.29***	(2.54)	
	학력	23.37***	(3.07)	1.87	(0.32)	
	소득	17.55***	(3.05)	2.99	(0.94)	
	거주지	18.11***	(3.52)	9.28***	(2.99)	
해양 관광 행태	해양 관광유형	스포츠형	18.10***	(3.06)	3.69	(0.71)
		유람형	-5.23	(-0.86)	-3.01	(-0.72)
		휴양형	-10.94*	(-1.82)	-0.51	(-0.14)
	동반형태	18.77***	(3.09)	2.07	(0.40)	
	숙박형태	19.68***	(3.29)	15.68***	(4.88)	
해양 관광	정보원천	8.76	(1.59)	6.03	(1.65)	
	여행정보	2.46	(0.40)	-6.51*	(-1.79)	
	해산물 먹거리	-6.51	(-1.07)	-3.65	(-0.93)	

만족 요인	자연경관	-8.98	(-1.17)	-0.33	(-0.07)
	주변관광상품의 연계성	2.30	(0.37)	3.11	(0.81)
	해양레저활동	12.03*	(1.83)	-0.84	(-0.23)
	해양체험활동	-3.59	(-0.61)	9.38**	(2.22)
	교통비	-7.39	(-1.20)	1.18	(0.33)
	교통편리성	1.77	(0.31)	4.21	(0.99)
	숙박비용	3.30	(0.47)	2.76	(0.58)
	다양한 숙박시설	-8.42	(-1.04)	-5.23	(-1.19)
	숙박시설의 예약성	-5.72	(-0.78)	-3.68	(-0.58)
	흥미로운 관광시설	9.30	(1.31)	3.41	(0.69)
	지역특유 동식물	-5.83	(-0.83)	6.83	(1.13)
	특산품	2.43	(0.35)	-8.52	(-1.25)
	지역주민의 친절	6.92	(1.13)	6.67	(1.66)
SCALE		71.776(0.000)		47.761(0.000)	
Log likelihood		-4770.305		-4117.129	
Avg. log likelihood		-5.692		-5.285	

주. ***, **, *는 각각 1%, 5%, 10% 이하의 통계적 유의수준을 의미

다음으로 숙박비 지출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면, 사회경제적 특성 중 남자그룹(5%이하 유의수준)이 숙박비 지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반면, 전문직/사무직/공무원·교직원 직업그룹(1%이하 유의수준)과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거주지 그룹(1%이하 유의수준)은 숙박비 지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혼그룹, 연령, 대졸이상 학력그룹, 300만원이상의 소득그룹 등은 숙박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해양관광 행태적 특성 중에는 유일하게 모텔/호텔 숙박그룹(5%이하 유의수준)이 숙박비 지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해양관광만족요인 중 여행정보에 대한 만족도(10%이하 유의수준)가 높을수록 숙박비 지출에 부정적인 반면 해양체험활동에 대한 만족도(5%이하 유의수준)가 높을수록 숙박비 지출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5>는 음·식료비와 쇼핑비 지출모형의 추정결과를 나타낸다. 우선 숙박비 지출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면, 사회경제적 특성 중 전문직/사무직/공무원·교직원 직업그룹(10%이하 유의수준)과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거주지 그룹(5%이하 유의수준)은 음·식료비 지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기혼그룹, 남자그룹, 연령, 대졸이상 학력그룹, 월 300만원이상의 소득그룹 등은 음·식료비 지출에 영

향을 미치지 않았다.

해양관광 행태적 특성 중에는 모텔/호텔 숙박그룹(1%이하 유의수준)과 인터넷 정보발굴(1%이하 유의수준) 등이 음식료비 지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해양관광만족요인 중 교통편리성(5%이하 유의수준)은 음식료비 지출에 긍정적이거나 다양한 숙박시설(10%이하 유의수준)은 음식료비 지출에 부정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쇼핑비 지출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면, 사회경제적 특성요인 중 남자그룹(10%이하 유의수준)은 쇼핑비 지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반면, 대졸이상의 학력그룹(1%이하 유의수준)과 월300만원이상 소득그룹(1%이하 유의수준)은 쇼핑비 지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관광행태요인중 해양관광스포츠형(1%이하 유의수준)이 쇼핑비 지출에 긍정적인 반면 해양관광휴양형(1%이하 유의수준)은 쇼핑비 지출에 부정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해양관광만족요인 중에는 해양체험활동(5%이하 유의수준)과 흥미로운 관광시설요인(10%이하 유의수준)이 쇼핑비 지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으나, 숙박시설의 예약성 요인(10%이하 유의수준)은 쇼핑비 지출에 부정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5> 음식료비와 쇼핑비 지출 모형의 추정결과

변수명		음식료비		쇼핑비	
		계수	(Z-통계량)	계수	(Z-통계량)
상수항		38.16***	(4.82)	42.45***	(2.47)
사회 경제 적특 성	결혼여부	-1.94	(-0.39)	14.20	(1.46)
	성별	-2.25	(-0.74)	-10.67*	(-1.76)
	연령	0.01	(0.04)	0.30	(0.85)
	직업	5.35*	(1.77)	1.60	(0.24)
	학력	1.74	(0.39)	18.95***	(2.47)
	소득	0.52	(0.15)	16.09***	(2.88)
	거주지	6.68**	(2.37)	-1.63	(-0.27)
해양 관광 행태	해양관광유형				
	스포츠형	4.36	(1.20)	19.91***	(2.70)
	유람형	-4.81	(-1.54)	-0.92	(-0.12)

해양 관광 만족 요인	휴양형	0.53	(0.17)	-16.08***	(-2.75)
	동반형태	3.59	(1.00)	-8.25	(-1.10)
	숙박형태	10.24***	(3.46)	1.56	(0.20)
	정보원천	8.33***	(2.91)	-5.12	(-0.70)
	여행정보	0.78	(0.25)	-1.65	(-0.26)
	해산물 먹거리	2.30	(0.67)	7.93	(1.18)
	자연경관	-4.90	(-1.18)	-14.04	(-1.46)
	주변관광상품의 연계성	-4.09	(-1.25)	-4.46	(-0.62)
	해양레저활동	1.46	(0.42)	-2.13	(-0.28)
	해양체험활동	2.79	(0.88)	13.50**	(2.03)
	교통비	-2.28	(-0.71)	-4.16	(-0.58)
	교통편리성	6.85**	(1.97)	-2.14	(-0.30)
	숙박비용	4.94	(1.28)	4.25	(0.68)
	다양한 숙박시설	-6.40*	(-1.70)	-1.94	(-0.30)
	숙박시설의 예약성	-3.90	(-1.06)	-10.91*	(-1.75)
	흥미로운 관광시설	1.34	(0.36)	14.74*	(1.78)
	지역특유 동식물	4.85	(1.31)	4.93	(0.60)
	특산품	-5.07	(-1.31)	4.40	(0.56)
	지역주민의 친절	4.07	(1.28)	-1.87	(-0.29)
	SCALE	39.973(0.000)		68.880(0.000)	
Log likelihood	-4213.394		-3102.562		
Avg. log likelihood	-5.107		-5.651		

주: ***, **, *는 각각 1%, 5%, 10% 이하의 통계적 유의수준을 의미

<표 6>은 오락비와 기타비용 지출모형의 추정결과를 나타낸다. 우선 오락비 지출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면, 사회경제 특성요인 중 기혼그룹(1%이하 유의수준)과 월300만원이상 소득그룹(5%이하 유의수준)이 오락비 지출에 긍정적인 반면, 대졸이상의 학력그룹(10%이하 유의수준)은 오락비 지출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관광행태요인중 해양

관광 스포츠형(1%이하 유의수준)이 오락비 지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 반면 해양관광휴양형(1%이하 유의수준)은 오락비 지출에 부정적이었고, 가족동반그룹(10%이하 유의수준) 역시 오락비 지출에 부정적인 것으로 관찰되었다.

해양관광만족요인 중 해양레저활동(5%이하 유의수준), 교통편리성(5%이하 유의수준), 다양한 숙박시설(10%이하 유의수준)의 만족도 요인은 오락비 지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교통비(5%이하 유의수준)와 숙박비용(1%이하 유의수준)의 만족도 요인은 오락비 지출에 부정적인 음(-)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해양레저활동, 교통편리성, 다양한 숙박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오락비 지출에 긍정적이며, 교통비와 숙박비용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오락비 지출에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기타비용 지출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면, 기혼그룹(5%이하 유의수준), 해양관광스포츠형(5%이하 유의수준)은 기타비용 지출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가족동반그룹(10%이하 유의수준)과 자연경관(10%이하 유의수준), 숙박시설의 예약성(5%이하 유의수준), 특산품(10%이하 유의수준) 등의 만족도요인은 기타비용지출에 부정적인 음(-)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표 6> 오락비와 기타비용 지출 모형의 추정결과

변수명		오락비		기타비용		
		계수	(Z-통계량)	계수	(Z-통계량)	
사회경제적특성	상수항	56.65***	(5.86)	91.89***	(3.50)	
	결혼여부	13.71***	(2.58)	28.91**	(2.05)	
	성별	4.91	(1.52)	-4.53	(-0.60)	
	연령	-0.22	(-1.13)	-0.29	(-0.61)	
	직업	-2.25	(-0.59)	-13.48	(-1.44)	
	학력	-10.80*	(-1.89)	-9.70	(-0.85)	
	소득	8.55**	(2.17)	-6.44	(-0.64)	
	거주지	-0.47	(-0.13)	4.99	(0.58)	
해양관광행태	스포츠형	13.88***	(3.46)	19.64**	(2.17)	
	해양관광유형	유람형	-1.52	(-0.35)	-6.03	(-0.62)
		휴양형	-11.79***	(-3.33)	-11.48	(-1.38)

	동반형태	-6.56*	(-1.69)	-16.29*	(-1.71)
	숙박형태	5.82	(1.34)	13.31	(1.39)
	정보원천	-0.92	(-0.22)	9.91	(1.06)
해양 관광 민족 요인	여행정보	1.34	(0.29)	5.50	(0.65)
	해산물 먹거리	2.03	(0.46)	4.94	(0.54)
	자연경관	-2.65	(-0.36)	-27.92*	(-1.86)
	주변관광상품의 연계성	-1.68	(-0.42)	0.93	(0.08)
	해양레저활동	8.32**	(2.10)	-0.06	(0.00)
	해양체험활동	-3.36	(-0.89)	-0.55	(-0.06)
	교통비	-10.96**	(-2.32)	21.08	(1.61)
	교통편리성	10.81**	(2.10)	14.87	(1.46)
	숙박비용	-13.43***	(-2.72)	-8.66	(-0.85)
	다양한 숙박시설	8.72*	(1.67)	-2.53	(-0.24)
	숙박시설의 예약성	0.75	(0.16)	-25.55**	(-2.31)
	흥미로운 관광시설	1.07	(0.21)	6.69	(0.60)
	지역특유 동식물	-4.02	(-0.95)	7.46	(0.90)
	특산품	-1.68	(-0.33)	-17.63*	(-1.87)
	지역주민의 친절	5.94	(1.36)	-2.81	(-0.23)
SCALE	45.247(0.000)		69.371(0.000)		
Log likelihood	-3504.814		-1669.231		
Avg. log likelihood	-5.231		-5.658		

주: ***, **, *는 각각 1%, 5%, 10% 이하의 통계적 유의수준을 의미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Tobit모형을 이용하여 제주 해양관광의 지출결정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분석 자료는 계절적 편차를 줄이기 위하여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에 걸쳐 각 계절별로 250명씩 총 1,000명의 제주 관광객 조사로부터 수집되었다. 설문대상지는 공항, 여객선부두, 주요 해양관광지 등이며, 조사자 편익(bias)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전교육을 통해 설문지에 대한 각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숙지한 전문조사요원을 투입시켜 개별면담조사법으로 설문조사가 진행되었다. 표본 1000개중 해양관광활동을 경험한 841개의 유효표본에서 결측치 2개의 표본을 제외한 839개의 표본을 분석에 이용하였다.

제주 해양관광객의 지출요인을 분석한 결과, 월 300만원이상 소득, 수도권 거주지 등 사회경제적 특성 요인이 총지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해양관광 행태적 특성 중에는 해양관광 스포츠형그룹(요

트, 수상스키, 윈드서핑, 스쿠버다이빙 등을 포함하는 활동 그룹)이 총지출에 양(+의 영향을 준 반면 해양관광 휴양형그룹(해수욕, 해변캠프, 갯벌 생태관광, 조개잡이, 바다낚시, 해양 박물관 관람, 해변걷기, 해변에서 수산물 시식/쇼핑, 일출·일몰 등 경관감상, 해양축제 참가 등을 포함하는 활동 그룹)은 총지출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한 정보 발굴 등이 총지출에 대해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양레저활동 요인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교통비 지출에 긍정적이며, 해양체험활동 요인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숙박비 지출에 긍정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해양레저활동, 교통편리성, 다양한 숙박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오락비 지출에 긍정적인 것으로 관찰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얻을 수 있는 주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해양관광유형 중 스포츠형은 지출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휴양형은 지출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제주 해양관광의 정책과 방향은 앞으로 제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해수욕, 해변캠프, 갯벌 생태관광, 조개잡이, 바다낚시, 해양 박물관 관람, 해변걷기, 경관감상 등의 단순한 해양관광 휴양형에서 벗어나 요트, 수상스키, 윈드서핑, 스쿠버다이빙 등의 해양관광 스포츠형으로 개발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인터넷을 통한 정보 발굴 등이 총지출액과 음·식료비 지출액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해양관광 정책담당자는 현재 잘 개발된 제주특별자치도 공식 관광정보 사이트인 제주 놀멍 쉬멍 사이트를 활용하여 이용자가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검색 콘텐츠를 확보하고 알찬 제주 맛집 소개와 신규 특산품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제주만의 다양하고 고유한 콘텐츠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셋째, 해양관광 만족도요인 분석에서 해양레저활동 요인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교통비와 오락비 지출에 긍정적이며, 해양체험활동 요인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숙박비 지출에 긍정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해양관광객의 지출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해양관광객의 니즈에 충족되는 요트, 모터보트, 잠수함관광, 선상낚시 등 다양한 해양레저 및 해양체험활동의 개발이 필요함을 암시하고 있다.

참고문헌

- 강석규, 「관광객 증가에 따른 제주 해양관광산업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해양수산부』, 2014.
- 구세주·유승훈·곽승준, 「토빗모형을 이용한 무선인터넷 소비지출의 결정요인분석」, 『산업경제연구』 제21권 3호, 2008.
- 김민수·전진호, 「축제방문객의 만족도와 지출요인에 대한 실증적 연구-강릉커피 축제를 대상으로」, 『관광연구저널』 제27권 제6호, 2013.
- 김선하·이희승·현미선, 「Tobit 모형을 이용한 축제참가자 지출 유형에 관한 연구-한국의 술과 떡 잔치 2003-」, 『호텔관광연구』 제7권 제1호, 2005.
- 김연선·소국섭, 「맥주전문바 이용객의 방문빈도 결정요인 및 한계효과: 강남지역의 맥주전문바를 중심으로」, 『외식경영연구』 제11권 제3호, 2008.
- 김영준, 「해양 관광개발 사례 연구: 국내의 관광개발 사례연구(II)」,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7.
- 박수진·홍장원, 「우리나라 해양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개선방향에 관한 고찰」, 『해양환경안전학회지』 제18권 제2호, 2012.
- 신동주·손재영, 「해양관광발전을 위한 여건분석과 정책과제」, 『해양정책연구』 제22권 제2호, 2007, 2007.
- 소국섭·유창근, 「스포츠전시회 기대불일치 및 참가동기가 전시관람행태와 지출에 미치는 영향」, 『관광·레저연구』, 제19권 제1호, pp. 147-164.
- 이민규·박은영, 「김 가정 소비 지출의 결정 요인 분석: 선택 편의를 고려한 Type II 토빗 모형을 이용하여」, 『수산경영론집』 제40권 제3호, 2009.
- 이범재·정경일, 「골프비용 지출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관광연구』 제23권 제4호, 2008.
- 이승길, 「해양관광 방문수요 및 지출결정요인에 관한 연구-다도해해상국립공원 방문객을 중심으로」, 『관광연구』 제25권 제1호, 2010.
- 이승길·김현·유창근, 「지역축제방문객의 지출결정요인」, 『호텔경영학연구』 제15권 제4호, 2006.
- 이상춘 외, 『해양관광의 이해』, 백산출판사, 2004.
- 이희찬, 「축제참여자의 관광지출 결정요인-Tobit 모형의 적용-」, 『관광학연구』 제

26권 제1호, 2002.

이희찬, 「농촌관광시장규모 추정」, 『관광학 연구』 제31권 제4호, 2007.

한은진·박정열·백운일, 「동래온천방문객의 지출 결정요인」, 『관광연구』 제24권 제3호, 2009.

제주발전연구원, 『제주지역의 해양관광 활성화 방안』, 2012.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산업의 경제효과 분석』, 2011.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민여행실태조사 및 해양관광실태조사』, 2013.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기본계획: Ocean Korea 21』, 2001.

해양수산부, 『제2차 해양관광진흥기본계획』, 2014.

Greene, W. H., *Econometric Analysis*, 5th, ed., Prentice Hall., 2003.

Maddala, G. S., "A Note on the Estimation of Limited Dependent Variable Models under Rational Expectation, *Economic Letters*, 38(1), 1992.

Tobin, J., "Estimation of relationship for Limited Dependent Variables, *Econometrica*, 26, 1958.

Abstract

A Study on Determinant of Tourist Expenditures for Jeju Marine Tourism*

Kang, Seok-Kyu**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determinants of tourist expenditures for Jeju marine tourism. For this study, the Tobit model is applied.

The empirical results of this study the estimation results of expenditures model using Tobit model indicate that determinants of marine tourism expenditures are capital resident group, marine sports tourism style group, marine resort tourism style group, discovering information using internet, the satisfaction of marine leisure activity, the satisfaction of marine experience activity, the satisfaction of traffic convenience, the satisfaction of multiple lodge facilities and so on.

Jeju marine tourist's expenditures have positive relation with factors like capital resident group, marine sports tourism style group, discovering information using internet, he satisfaction of marine leisure activity, the satisfaction of marine experience activity, the satisfaction of traffic convenience, and the satisfaction of multiple lodge facilities. However, Jeju marine tourist's expenditures have negative relation with factor like marine resort tourism style group.

* This research was a part of the project titled "The Economic Effect of Jeju Marine Tourism Industry by Tourist Increase", funded by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Korean.

**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Key Words : Jeju, Marine Tourism, Expenditures Determinant, Tobit Model

교신 : 강석규 690-75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66
제주대학교 경영학과
(E-mail : kangsk@jejunu.ac.kr)

논문투고일 2014. 04. 30.

심사완료일 2014. 06. 20.

게재확정일 2014. 06. 25.